

## [ 여행 ]

## 베트남 재발견



## ① 호치민·후에

베트남은 동남 아시아 개발 도상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자본주의는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번창으로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에는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베트남을 방문하면 전통문화, 프랑스 식민 시대의 흔적 및 공산주의 유산이 혼합되어 있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 전쟁의 상흔 훌훌 털고 평화의 꽃 피워낸 나라



## 사이공, 과거와 현재 교차...베트남 속 유럽

## 호치민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경제의 축은 담당하고 있다. 혼다 드림 오토바이를 탄 젊은 여인이 긴 머리를 헤날리며 하이힐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러시아워의 정체된 도로를 교묘히 빠져나간다. 흥정과 거래가 이뤄지는 야외시장, 여행객들이 맥주를 마시며 단소를 나누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호치민 시는 베트남 여행객들에게 중부, 북부를 여행하는 출발점이나 종착지 역할을 한다. 비공식적으로 '사이공'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1956년 ~ 1975년까지 베트남 공화국의 수도였다.

첫번째 방문한 곳은 '전쟁 박물관'. 이곳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쟁행위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돼 전쟁의 진학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전쟁은 꼼꼼한 민족 잔인한 것이며 주로 민간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학살됐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 속연함을 더한다.

호치민 시 중심부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중앙 우체국'은 여행객들의 방문 코스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을 본떠 만들어 져 결혼을 앞둔 현지인들의 단골 할 영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중앙 우체국은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우체국으로 건축 양식(유리로 덮은 철근 구조물)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찾는다.